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7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3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6. 30.(목)	담당부서	전력산업정책과
담당과장	강감찬 과장(044-203-3880) 정승혜 과장(044-203-4230)	담 당 자	이디도 사무관(044-203-3881) 김경모 주무관(044-203-3932)

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빈틈없이 관리

▸산업부 2차관, 전력수급 대책 발표 직후 신양재변전소 현장점검
▸설비 사전점검 및 대비태세 유지로 국민 불편 예방토록 당부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**은 **6.30(목) 16시 신양재변전소**를 방문하여, 전력 유관기관별 **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점검**하고 **변전설비 운영상황을 점검**하였음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《 현장 점검 개요 》

▶ (일시/장소) '22. 6. 30.(목) 16:00 / 한국전력 한전아트센터 → 신양재변전소
* 현장점검 前 기관별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대책 점검(한전아트센터 11층 대회의실)

▶ (참석자) 산업부 2차관, 전력산업정책과장, 전력계통혁신과장
한전 사장, 전력거래소 이사장, 동서발전 사장, 중부발전 사장,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

▶ (주요내용) 기관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및 변전설비 운영상황 점검

○ 박 차관의 이번 방문은 **금일 오전** 총리 주재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**「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」을 발표한 직후 추진**된 것으로, 본격적인 수급대책기간(7.4~9.8)에 들어가기 이전 **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**하기 위해 이루어졌음

□ **박 차관**은 "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수요가 증가한 반면, 전력 공급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**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**"고 진단하고,

윤유진 / 홍보담당관 / 2022-07-07 17:12:45

○ “정부는 추가 예비자원 확보, 수요관리 등 **금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**을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**비상한 각오로 추진**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”고 언급함

○ 특히 박 차관은 “**신양재변전소 등 송변전설비**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설비인만큼, 본격적인 **여름철 수급대책기간 이전 철저히 점검**하여 불시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이 없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함

□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현장점검 이전 기관별로 올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대책을 점검하였으며, 기관별 주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○ **(전력거래소)** 전력수요 급증 및 발전기 불시 고장 등에 대비하여 단계별로 **최대 9.2GW의 예비자원**을 확보한 바, **선제적으로 대응**하여 수급비상 상황을 사전에 차단

○ **(한전)** 여름철 송변전설비, 화재취약개소, 지중 저압설비 등 **사전점검을 실시**하고, 정전발생대비 **신속복구 지원체계**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, 수급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**추가 예비자원 확보**

○ **(에너지공단)** 대국민 매체 홍보, 온·오프라인 캠페인, 공공부문 실태점검 등을 통해 **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문화를 조성**하고, 수급비상시 다소비사업장 등 대상 **냉방기 순차운휴 등 지원조치** 실시

○ **(발전5사) 경영진 현장경영** 등 **3무(무고장·무사고·무재해) 특별활동**을 통해 전력공급 지장을 최소화하고, **연료공급·긴급복구** 등에 **발전사간 공조를 강화**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추진

□ 기관별 전력수급 대책 점검 이후, 박 차관은 신양재변전소 변압기실 및 전력구를 방문하여 철저한 설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,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수고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이디도 사무관(☎ 044-203-38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윤유진 / 홍보담당관 / 2022-07-07 17:12:45